

CFO Message



대우건설을 아껴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대우건설의 최고재무책임자 임경택입니다.
201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첫 인사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5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 속에 국제유가의 급락 등으로 건설시장의 수익성 악화가 상당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독보적인 주택공급실적과 해외시장 다변화, 차별화 전략으로 수주 13조 736억 원, 매출 9조 8,775억 원, 영업이익 3,346억 원이라는 경영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전 임직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믿음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건설시장은 개방화되고 있으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 시공 및 EPC 프로젝트 만으로는 회사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우건설은 'Global Infra & Energy Developer'를 중장기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수행 고도화와 전문화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 투자·개발·운영 영역 확대를 통한 사업 다각화, Globalization, 창조적 기업문화 정립과 인력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총 6단계로 관리하는 프로젝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모든 현장의 총 예정원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대우건설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 등 전 공종에 걸쳐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인 수주전략을 펼치고 효율적인 현장 원가관리를 통해 수주 12조 2,000억 원 달성은 물론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10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2025년 매출 25조 원, 영업이익 2조 원 달성을 위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2016년은 대우건설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 목표 달성과 함께 인류와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는 대우건설의 2025 비전 실현을 위해 전 임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주식회사 대우건설
최고재무책임자 임 경 택